



# “불교중흥 발원하여 천리순례 동참한 원력 기립니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1.11 20:33 수정 2021.11.12 15:43 호수 1609 댓글 1

상월선원 만행결사, 11월11일 결사 2주년·삼보순례 회향 기념 자승 스님 “만행결사 포교 실천으로 한국불교 위기 극복” 당부 완보자 88명에 증서 수여...동국대 등에 불교중흥기금 전달도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1월11일 서울 더라빌에서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회향식’을 병행했다

“국난극복과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여 천리순례에 동참한 원력을 기립니다. 세상에 어법함과 삼보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알리길 발원하여 천리순례에 동참한 신심을 기립니다.”

기해년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2주년을 기념하고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발원으로 진행한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을 자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1월11일 서울 더라빌에서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회향식’을 병행했다. 이 자리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과 삼보사찰 천리순례 423km를 완주한 순례단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중앙종회의장 정문,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범해,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2019년 기해년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정신을 이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실천행으로 마련됐다. 순례단은 10월1일 승보총찰 송광사를 출발해 10월9일 법보총찰 해인사를 거쳐 10월18일 불보총찰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순례단은 423km의 거리를 온전히 두 발에 의지해 삼보사찰을 참배했다. 비구 48명, 비구니 6명, 우바이 26명, 우바새 14명 등 사부대중 94명이 첫발을 내딛어 88명이 완보를 했다.

이주면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 최신뉴스 더보기 >



해인사승가대학 총동 “벽암각성 스님과 국문회 21대 회장에 수 일암·소장 문화재 가

서능동 주민자치위원회, 용인시처인노인복지...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 조계종-LH,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업무협약 ‘사회학으로 고찰하는 싱가포르 불교의 발전 양... 원법사장학회 “동국대 학생들의 꿈을 응원함...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동안거 결제 법어 태고종, ‘종단 통일외례집’ 발간 추진 중관학당, 용수보살 ‘회쟁론’ 겨울캠프 개최

## 연재 < >

- 세심정심** 계절이 주는 가르침
-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 기도 김윤성(청안, 5...
-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20. 국내 최대 아마타대불과...
- 무진등** “불교 항일운동사 재정립, 한...
-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40. 이근의 번뇌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향한 88명에게 직접 안보증서를 전달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향한 88명에게 직접 안보증서를 전달했다. 특히 법문을 통해 '결사'의 의미를 전하며 부처님 법 전하는 '포교' 불사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기간 중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가 결사"라며 "결사라는 게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시대 사치하고 부패한 불교를 수행으로 바로잡겠다는 게 정혜결사였고, 왜색에 물든 불교를 계율과 수행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는 게 봉암사결사였다"며 "상월결사-만행결사는 현재 총체적 위기의 한국불교를 사부대중이 함께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시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결사"라며 "사부대중이 만행결사를 통해 부처님처럼 포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체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포교에 있음을 역설했다. 자승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평생하신 일이 포교다. 현재 한국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말하면서 상구보리는 있되 하화중생은 없다"며 "출가자가 줄고 불자가 감소한다고 걱정하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믿으라'는 낯뜨거운 포교 불사를 실천해야 한다"며 "오로지 포교뿐이다. 사부대중이 결사를 통해 부처님처럼 포교에 나서 한국불교가 처한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은 회향보고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과 속, 남과 여, 노와 소가 차별 없이 길에서 먹고 자고 수행하며 삼보를 예경하고 심신과 원력을 쌓으면서 전법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영남과 호남의 5개 광역단체와 12곳의 기초단체를 거치며 지역의 전통과 자연, 문화를 체득하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 많이 본 뉴스

- 01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
- 02 [특별기고]선서화전에서 확인된 한국 불교의 희망
- 03 형제자매 상속권리 폐지...'스님 유언장' 효력 커질 듯
- 04 제2회 생명나눔 대상에 배우 수지
- 05 청년·학부모·다문화와 호흡하는 광주 포교거점 도량 선언
- 06 동국대, 전국 대학평가 9위...사상 첫 톱10 진입
- 07 창원불교연, 코로나 극복 발원 '시민 힐링 봉축음악회'
- 08 조계종 중앙종회, 중회 유회 책임 총무원에 전가 논란
- 09 "교육아사리, 시대변화 따른 활동변화 모색해야"
- 10 정청래 망발 사과 촉구 현수막 전국 사찰에 내걸린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도반과 지역민들의 격려는 순례단이 발걸음을 옮기는 원동력이었다”며 “순례기간 전해진 정성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기금은 다음 인도성지순례를 위해 이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1월2~8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을 통해 마련된 불교중흥기금을 포교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1월2~8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을 통해 마련된 불교중흥기금을 포교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기금은 동국대, 중앙승가대, 아름다운동행, 전국비구니회 등 12개 단체에 29억여원이 전달됐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9호 / 2021년 11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 1개의 댓글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버 (비회원) | 4일전

[삭제](#)

혼자 병거지 모자는 왜 쓰는지?

답글 작성    4    0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02-725-7010 | 팩스: 02-725-7017  
법인명: (주)법보신문사 | 제호: 법보신문 | 등록번호: 서울 다 07229 | 등록일: 2005-11-29 | 발행일: 2005-11-29  
발행인: 김형규 | 편집인: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